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연구*

김 민 경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개방코딩에서는 136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범주, 1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의 경우 패러다임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중심현상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이며 맥락적 조건은 ‘주도적임’,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 ‘좌절함’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함’과 ‘지지받음’ 조건에 의해 중재 받았으며, ‘꿈을 가지고 살음’, ‘긍정적으로 바라봄’의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결과로 결혼이민여성은 ‘자부심을 갖게 됨’,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다문화에 기대함’의 모습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핵심범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결혼이민 여성의 임파워먼트의 3가지 유형 즉 ‘문제극복 성취형’, ‘온유한 도전형’, ‘역할충실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는 ‘혼란단계’, ‘시도와 노력의 단계’, ‘안정을 찾는 단계’, ‘능력발휘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성취감과 만족감,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발전적인 도전을 꿈꾸고 있어 이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론구축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의 기초방향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

주요어 : 임파워먼트, 결혼이민여성, 근거이론,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07년(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7-327-B00438).

1)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E-mail : mkm35@nsu.ac.kr)

I. 서론

국제결혼이 한국에서 주변화된 한국남성과 동남아여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양상을 보면 2007년 38,491건으로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이 84.0%를 차지하며 2007년에는 총결혼건수의 11.1%에 해당되는 수치이다(통계청, 2008).

국제결혼증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연구주체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진행되었다. 우선 결혼이민여성을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로서 여성을 바라본 여성학과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국제결혼과 이주여성들의 갈등, 인권유린, 한국가부장제의 문제 등을 부각시켰다(윤형숙, 2004; 홍기혜, 2000). 다음으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실태를 통한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되었다(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보건복지부, 2005; 전라남도, 2006). 그 후 각 분야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에서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포함한 시부모와의 갈등(윤형숙, 2004), 부부갈등(김오남, 2006; 최연실 등, 2007), 가족생활갈등(박정숙 등, 2007), 남편음주(신경희, 2004; 양선화, 2004), 양육스트레스(서홍란 등, 2008), 문화적응스트레스(양옥경 등, 2009) 등 세부영역별로 주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적응(정천석, 강기정, 2008; 채옥희, 홍달아기, 2007), 갈등과 적응을 연결짓는 연구들(구차순, 2007; 차옥승,

2008; 최금해, 2007; 최연실 등, 2007; 한건수, 2006), 이혼 의사에 대한 연구(박재규, 2007) 등 결혼의 지속성과 유지과정에도 관심이 기울여졌다. 최근에는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여성의 어려움과 갈등보다는 긍정성을 발견한 연구들(김연수, 2007; 양순미, 2007)이 결혼이민여성의 행복과 만족 측면에 관심을 보여 결혼이민여성의 문제중심적 접근이 아닌 삶의 건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정응적 특성을 조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가 있어왔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내는 심각한 문제들에만 집중적으로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이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하며 자신의 결혼의 의미, 내용,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위자(agent)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한 매매혼적 규정과 결혼이민여성을 국제결혼의 일방적인 희생자로 이미지화하고 고착시키는 문제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국제결혼한 이민여성들을 지나치게 피해자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답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결혼이민여성이 결혼을 통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나 부정응보다는 적응을 지원하는 전략 혹은 개입에 초점을 두는 임파워먼트 접근(empowerment approach)이 논의되고 있

다. 임파워먼트 접근은 무기력, 억압, 절망의 상태에서부터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이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극복하는 과정 및 능력인 임파워먼트는 강점관점의 연구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표적 개념이다(Gutheil & Congress, 2000). 따라서 임파워먼트개념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가는지, 개인이 성공적인 적응요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Bernard, 1999).

따라서 경험자의 관점에서 임파워먼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결혼이민 여성이 한국생활의 체험과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하는 연구, 특히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건강한 발달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임파워먼트는 주로 목표나 과정, 개입의 형태 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Gutierrez et al., 1995). 과정으로서의 임파워먼트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통해 그들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생태학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Garba, 1999; Rappaport, 1984; Williams & Labonte, 2007). 즉 임파워먼트의 과정을 통해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정치·사회적 힘을 발휘하여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Shera & Wells, 2004). 결과적으로 임파워먼트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개인적 수준에서 시작된 임파워먼트는 대인관계, 정치, 사회적인 기술

과 자원을 통해 조직, 사회차원까지도 영향을 맺게 됨과 동시에 삶속에서 일정한 단계를 가지고 전개되며 자신이 속한 사회속에서 기능하는 정도와 양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사회를 임파워먼트하는 것에 대해 주류사회에서 주변화될 대상에 대한 임파워먼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Hsia, 2005). 즉 억압받는자들이 ‘침묵의 문화’를 깨고 그 사이에서 결속력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결혼을 목적으로 온 이민여성에게 임파워먼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임파워먼트는 여성이 권리를 바로잡기 위한 강화, 어려움에 대한 어떤 것을 행하는 자극제를 제공하여 자유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언급하였다(Tapiru, 2005).

임파워먼트를 종적 측면에서 고찰한 임파워먼트의 과정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본에 온 필리핀 여성에 대한 연구(Szuki, 2003)에서 과거에 이들 여성들은 사회적 희생자와 성적으로 종속당하는 존재로서 묘사되었으나 욕구와 열망과 함께 성적,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정체감을 변화시킴으로서 성에 기반한 규범과 농촌지역 가족과 지역사회내 희생자에서 일상 행동에 도전하는 대상으로 보고하였다. 즉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일본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 선택과 현실은 신부로서 살아오면서 그들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갖고 그들 정체성을 재정의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Rolls와 Chamberlain(2004)은 호주에 온 네팔여성이 교육과 기술수준,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문화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조정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고 하였다. 그 과정으로 문화충격은 새롭게 도착한 이민자에

게 의사소통패턴과 행동이 본국과 매우 다르다는 인식발달단계, 호주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제한으로부터 선택과 자유에 감사하는 의존으로부터 변화(적응)단계, 호주가 그들 고향이라는 감정을 갖는 동화단계, 개인적인 생활방식에 노출된 네팔여성은 타인의 행동에 관심이 없고 자유로운 동화에서 자율단계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Cottrell(1990)은 국제결혼의 문헌고찰을 통해 국제결혼한 이민여성의 3가지 다른 유형을 구체화한 결과 소외당한 유형, 문화갈등과 주변화된 유형, 여성의 개인적 성취를 획득한 유형으로 언급하여 임파워먼트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는 본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서 삶을 다시 시작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도전자와 의지표명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선행연구들의 경향을 보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적응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특정국가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의 갈등을 적응을 다룬 연구(최금해, 2007; 최연실 등, 2007; 한건수, 2006), 문화적응과 정체성(박주희, 정진경, 2007), 결혼이민여성의 발달단계와 한국사회에 적응(최연실 등, 2008), 남편과 시부모까지를 포함해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적응에 관한 연구(구차순, 2007)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여성의 잠재력과 성장부분에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주체적 삶의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여성과 사회, 문화에서 강조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 접근은 우리사회의 시각변화와 그들의 역량강화와 능력고취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이 잠재적 역량으로서 임파워먼트능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가지고 결혼이민여성의 삶속에서 강점과 역량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강점관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뎌내기 매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피해자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의 삶을 긍정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며 이민여성의 단일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한국에 온 이후 지금까지의 보다 특별한 삶의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중요한 목적을 둔다. 이들 여성들의 적응능력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맥락속에서 개별적인 삶의 경험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위기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어떠한 실제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봄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복지의 개입방법을 모색하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량과 자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비확률표집방법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 하는 유의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 온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사회에서 임파워먼트되기에 한국어를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노동이주가 아닌 결혼이주인 경우 새롭게 형성된 가족과 사회생활을 폭넓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이 직면한 현실적 벽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관문을 지나 현재에 잘 적응하며 직업생활과 결혼생활을 잘해 나가는 그 자체를 임파워먼트의 결과로 간주하였다. 이는 인터뷰에서 각 참여자들에게 과연 본 연구진의 의도가 적절한가를 재질문하였으며, 본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여성과 사회복지 전문가 모두 그 적절성에 동의할 얻어 그 대상을 선정하고, 경험을 심층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이들 여성 대부분과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해 많은 시간을 공유한 총 12명을 인터뷰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첫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으로서 접촉경험과 관찰을 통해 본 연구대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으로 참여시켰다. 또한 첫 인터뷰에서 연구의 목적과 의의 등을 설명하고 임파워먼트 개념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연구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결혼이민여성을

추천받는 형태인 눈덩이표집을 하였다. 두 번째 추천받은 연구 참여자는 첫 결혼이민여성 추천을 통해 다른 참여자를 선정해 나가는 형태로 인터뷰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의 두 가지 원리는 적절성과 충분성이다(신경림 역, 1997). 표본추출의 적절성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한지 3년 이상된 여성들을 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확보하였고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접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질적인 연구방법은 크게 개별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방법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합의를 받은 후 시작하며, 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담의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면담에서의 질문은 공식적이고 순서적이라기보다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면담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한 환경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자택

방문, 학교 연구실이나 세미나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실 등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나 전자메일을 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질문으로 인터뷰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 ‘국제결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가?’, ‘한국에서 결혼 및 직업생활의 경험은 어떠한가?’, ‘한국에 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과정은 무엇인가?’, ‘결혼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로 힘들었을 때 자신에게 스스로 힘을 부여하며 극복하게 한 동인, 그 과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면담 즉시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면담 당일에 면담 사례에 대한 완전측어록을 작성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은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이며 총 11개월간 결혼이민여성과 1대 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은 자료포화를 위한 표집과 자문진의 의견 교환 및 분석 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근거해 연구자는 먼저 출력된 자료들을 한 줄 한 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떠오르는 잠정적 개념들을 가장자리에 메모해 두며, 자료 전체를 한번 정독하는 동안 초기에 이름 붙여진 개념들이 이후에 나온 개념들과 지속적으로 비교되어 수정되거나 통합되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출현하여 이에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전체를 통독한 뒤에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개념들을 수정, 축소하면서 주제 범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과정은 전체 3번 이상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발견된 주제의 일관성이 높아졌다.

또한 근거이론을 적용할 때 과정은 크게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세 단계 순으로 진행한다.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여 이름을 붙이고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으로부터 출현한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결시키며 속성과 차원수준에서 밀도 있고 잘 개발된 범주를 형성하여 범주들간의 관계를 밝혀낸다. 그리고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하고 논리적 연결을 시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근거이론분석을 위해 제시된 패러다임모형에서 연구자는 관심사의 중심현상이 되는 한 범주를 확인하고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조건, 현상을 설명하는 전략들,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조건들, 전략을 수행한 결과들을 연결한다. 본 연구의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며 이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분석과정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즉 개방코딩에서 136개 개념, 27개의 하위범주, 14개의 상위범주로 나타났다. 축코딩에서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의 속성과 차원을 나눠 분석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임파워먼트과정유형이 문제극복 성취형, 온유한 도전형, 역할충실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혼이민여성으로서 어려움과 차이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살아가기로 연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 2인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4. 연구방법의 평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평가는 다르다.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와 본격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면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 동의서를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은 최윤정 등(2003)이 제시한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사실적 가치(trust-worthy), 적용성(applicability)에 따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12명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52세 1명, 22세 1명, 42세 1명을 제외하고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출신국은 필리핀이 6명 나머지 중국, 일본, 베트남으로 구성되었으며 결혼기간은 모두 3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강사에서 원어민강사, 공무원, 통·번역가 등 다양하며 학력에서도 초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졸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자녀가 있으며 한국국적은 8명이 취득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 1은 대학강사로서 뛰어난 미모와 밝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항상 긍정적 사고와 적극성이 돋보인다. 사례 2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될 때부터 다양한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고 최근 원어민강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사례 3은 중국한족출신임에도 한국어에 유창하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자녀양육지도사로 활동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자녀에게 다문화의식을 심어주는데 높은 실천력을 갖고 있다. 사례 4는 필리핀에서 비서를 하다가 와서 차분하고 교양미가 있다. 한국생활이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다. 사례 5는 대상자 중 가장 어리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종적이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사례	본인 연령	남편 연령	출신국 ¹⁾	결혼 기간	본인 직업	남편 직업	자녀 수	시부모 동거	가정 소득	본인 소득	본인 학력
1	39	47	일본	12	대학강사	회사원	4	○	450	200	대학원졸
2	36	42	필리핀	6	원어민강사	회사원	2	×	320	80	대졸
3	34	40	중국	10	아동양육지도사	운전기사	2	×	210	80	고졸
4	31	33	필리핀	3	학원강사	공무원	1	×	120	40	대졸
5	22	49	베트남	3	버섯공장근무	건축노동	1	○	90	90	초졸
6	32	40	필리핀	9	원어민강사	농업	2	○	150	120	대졸
7	31	44	필리핀	6	원어민강사	회사원	3 ²⁾	×	300	120	대졸
8	52	58	일본	23	공무원	무직	2	×	90	90	고졸
9	37	46	중국	9	공무원	목사	2	×	80	80	대졸
10	34	44	필리핀	8	원어민강사	무직	1	×	100	100	대중퇴
11	42	44	필리핀	11	원어민강사	농업	2	×	250	130	대졸
12	32	45	중국	9	통·번역가	공무원	2	×	400	200	대졸

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사례 6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솔도 하고 적응을 하지 못했으나 목사님의 도움으로 간병인, 원어민강사까지 하게 되어 자신은 물론 가족의 변화까지 유도하게 되었다. 사례 7은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이며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불쾌하게 느끼고 있다. 사례 8은 매우 검소하고 헌신적인 여성이다. 모든 일에 자신이 봉사하듯이 대하고 순종과 희생의 소유자이다. 이점 때문에 한국인들로부터 오해사기도 한다. 장애인남편을 처음부터 원하고 한국에 왔다. 사례 9는 러시아에 유학가서 목사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왔는데 힘든 상황을 독실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사례 10은 원어민강사이고 같은 출신국 여성들로부터 ‘큰언니’로 통하는 등 리더쉽이 있다. 과거 시댁식구로부터 고통당하였으나 지금은 분거하여 만족하고 있다. 사례 11은 자존감이 높은 편이며 한국인들의 자신에 대한 편견과 남편의 급한 성격에 대해 불만이다. 사례 12는 호탕하고 대담해보이며 머리가 좋고 자신감이 넘친다. 나이에 비해 사회적으로 성숙한 면을 보였다.

2. 개방코딩: 근거자료에 나타난 주요개념의 범주화

연구참여자들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 1) 현재 한국국적 취득: 사례 2, 3, 6, 7, 8, 9, 11, 12
2) 전처자녀포함

136개의 개념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 결과 종교로 결혼을 결정,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우연한 만남, 언어의 어려움, 남편에 대한 불만 등 27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 주도적임,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 좌절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스스로 노력함, 지지받음, 꿈을 가지고 살음, 긍정적으로 바라봄, 자부심을 갖게 됨, 한국인으로 살아감, 다문화에 기대함 등 14개의 상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축코딩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패러다임모형을 도출하고자 개방코딩의 결과를 기초로 축코딩을 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완벽에 가까운 설명을 위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며 패러다임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서로 연결 지워지는 구조를 보여준다(Strauss & Corbin, 1988).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 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의 경우,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가는 주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자녀가 결혼이민여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한국생활에서 좌절감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과정의 중심현상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심 현상 속에서 전략을 추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은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수용하고 노력하려고 애쓰며, 외부적으로는 가족과 주변이웃으로 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과 상호작용전략의 경우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결혼이민여성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문화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 즉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해주는 것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88).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이 중심현상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두 범주가 인과적 조건이라는 패러다임에 들어간 것은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을 시작으로 한국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혼의 형성과 결혼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임파워먼트되는데 동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 개념의 범주화: 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종교 때문에 국제결혼 결정, 남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 종교를 통해 만남, 하나님이 맺어줌	종교로 결혼결정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한국이 신기한 느낌, 한국의 더 나은 경제적 상황, 한국에 대한 호기심, 한국에서 내 인생의 변화기대, 막연하게 괜찮겠다는 느낌으로 결정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유학중 남편 만나게 됨, 가이드 일 하다 남편 만나게 됨, 주위친구들의 권유로 결정	우연한 만남	
언어 이해하지 못함으로 답답함, 의사소통 잘 안됨, 처음 눈빛과 마음으로만 대화, 한국어 습득 힘들, 언어와 문화차이의 어려움, 언어가 가장 큰 어려움, 존댓말 어법 어려움	언어의 어려움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
남편의 무계획성, 남편의 지나친 추진력, 남편은 돈도 주지 않음, 남편의 성격은 무뚝뚝, 남편의 욕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 존재, 말투(말하는 태도) 때문에 불편, 권위적인 남편, 남편이 대접받으려는 것, 남편과의 갈등은 대화로 풀지 못함, 남편과 다른 갈등해결방식	남편에 대한 불만	
한국에서 자녀 차별 걱정, 자녀의 언어문제 걱정, 자녀의 미래 걱정, 자녀의 한국어 점수 낮음, 자녀 숙제 못 봐 주는 거 미안함, 자녀 공부지도 가장 힘들	자녀가 걱정스러움	
시어머니와의 관계 난감,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음, 시어머니 말하는 방식이 상처를 줌, 시어머니 잔소리·욕 정말 싫음, 시어머니가 가장 문제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	
처음엔 외국인에 냉소적 반응, 한국인은 넘어가고자 함, 한국인들은 진심하지 않음, 간섭하는 한국인들 많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심각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	
나라간 문화차이, 교수법차이로 가르치는 일 힘들, 자신이 외국인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 직장내에서 남자들하고 폭넓은 교제를 안좋은 시각으로 보아 불편	녹록치 않은 직업생활	
음식 특히 김치 먹기 힘들었음, 부모 모시는 것 어려움, 날씨 다름,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지나치게 관심 많음, 친절 베풀 때도 기대하고 베풀, 자녀양육 방식 차이로 힘들, 한국문화에서 남자를 왕으로 생각, 남녀평등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차이느낌	한국문화와의 차이느낌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결정, 부모의 반대와 가족들의 반대에도 결혼 강행, 결정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추진함, 원하는 것을 해내려고 함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감	주도적임
어떤 어려움도 자녀 때문에 인내가능, 자녀는 투자, 엄마가 되어 좋음, 자녀가 결혼생활의 이유, 자녀가 오히려 위로해줌, 자녀 때문에 만족	자녀는 나의 존재이유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
자녀 양육 방법 어렵고 잘 모르겠음, 가르치는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음, 임신노력해도 잘 안됨	노력해도 안됨	좌절함
생활 만족은 높지 않음, 현재 만족하지 않음, 만족한 것도 불만족한 것도 있음, 친정어머니 못 보는 것 불만족, 한국생활 마음에 들지 않음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않음	

표 2.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 개념의 범주화: 개방코딩

(계속)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자녀로 인해 극복, 결혼에 대한 책임감,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극복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 극복하고 있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언어 때문에 자존심 상해 열심히 공부함,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한국이해와 수용하려는 노력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	스스로 노력함
남편의 위로, 남편 간섭 없음, 남편이 가끔 집안일 해줌, 남편이 친절엄마 한테도 잘함	남편의 지지	지지받음
시댁식구들이 잘 대해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나의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 주기 위한 것, 동서들의 물질적 지지, 시댁의 보살펴줌, 시어머니로부터 사랑받음, 시댁에서 시부모로부터 언어 배움	시댁식구의 지지	
주위 아는 형님과 친함, 목사님이 도와줌, 동네 아주머니들의 많은 도움, 주위사람들의 도움, 신도들의 도움, 아는 언니, 교회멤버, 직장동료들, 친구의 도움	주위 이웃의 지지	
센터의 도움과 지원, 센터선생님들로 인해 사회적 안정감 느낌, 상담, 교육해준 여성회관, 자활센터의 도움	공적기관의 지지	
최선을 다해 미래의 좋은 선생님, 엄마, 아내가 되고 싶음, 운전 배우고 싶음, 좀 더 자신감 있고 싶음, 경제적 부유를 원함	하고 싶은 일이 많음	꿈을 가지고 살음
다른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자신은 행운아라 생각, 힘든 점이 있어도 감사하려는 생각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	긍정적으로 바라봄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후 주위 반응이 달라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녀의 자부심, 집안일과 활동으로 시댁식구로부터 인정받음	인정받게 됨	자부심을 갖게 됨
친정가족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한 보람느낌, 일로 인해 얼굴도 밝고 자신감이 생김, 자녀의 인정(영어 잘함)으로 보람느낌	일을 통한 보람	
국적 구분 없이 살고 있음, 이젠 한국인으로 살아감,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이 그리움, 한국인으로 살고 있음, 한국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 한국생활이 어렵지 않음, 저축할 수 있어 좋음, 돈 벌어서 좋음	주체적 한국인으로 살아감	한국인으로 살아감
한국인들의 친해지려는 특성, 한국인들의 솔직함이 좋음, 한국의 나은 경제 상황과 의료 혜택 좋음,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 좋은 날씨	한국을 좋아함	
자녀에게 다문화 알려줌, 본국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더 넓은 세계를 자녀에게 알려 주는 것, 자녀들이 본국에 가서 학교 다닐 수 있음	다문화를 기대함	다문화를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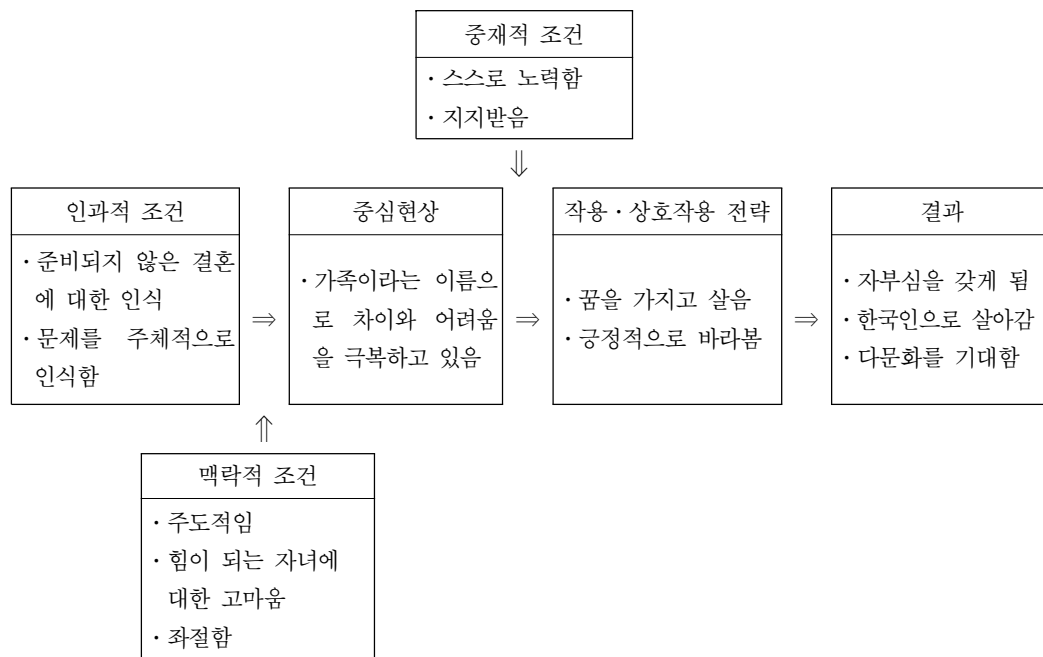


그림 1.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

①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 때문에 국제결혼을 결정하거나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거나 남편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결혼하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하느님이 맺어주었다거나 남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결혼의 결정요인이 종교였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더 나은 경제적 상황, 한국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 막연하게 팬찮을 것이라는 느낌으로 결혼할 마음을 가졌다고 하였다. 또한 유학중 봉사활동 하다가 남편을 만나거나 잠시 이모를 돕기 위해 관광 가이드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모두들 자신이 국제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고 하였다. 결혼과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계획보다는 상황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종교로 결혼결정’,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 ‘우연한 만남’으로 하위범주화 되고,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답답한 나라니까 국제결혼이 신기해 신기한 느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신기한 느낌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어요. (②-필리핀 출신 원어민강사 42세)

친구가 그 남편의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받은 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전화로 연애를 했어요. 그때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는데 전

화를 하면서 잘하게 되었네요. 만나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전화로 결혼 했어요. 어디 있는지 지방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만 듣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③-중국출신 아동양육지도사 34세)

이모네가 관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남편이 중국에 놀러 왔어요. 그 일행들을 가이드 하다가 남편을 만났죠.

(⑫-중국출신 통·번역가 32세)

②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서 언어의 어려움, 남편에 대한 불만, 자녀문제가 걱정스러움,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 녹녹치 않은 직업생활, 한국문화와의 차이 등을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남편은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음, 남편의 무계획성과 지나친 추진력, 남편이 경제권을 주지 않음, 쉽지만은 않은 직업생활을 제시하였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 부부간 서로 모르고 이해의 폭이 좁고 차이가 크다고 하였으며 남편과의 갈등해결에 있어 대화로 푸는데 한계가 있으며 갈등 후 남편은 성격이 급해 화가 금방 풀리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의 말하는 태도가 지시적이고 한마디로 권위적인 남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자녀가 잘살아가는데 차별이 걱정되고 자녀의 언어문제,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자녀의 숙제를 못 봐주는 것, 공부지도가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고 시어머니의 말하는 방식이 상처를 주고 특히 잔소리와 욕설이 정말 싫다고 제시하고 시어머니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인들이 자신에 대해 냉소적으로 대하고 대충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한국인들, 한국인들이 진실하지 않고 남일에 대해 간섭하고 관심이 많다고 한국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한국문화에서 남자를 왕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날씨를 비롯하여 참여자의 출신국과 한국의 모든 면에서 다른 차이를 언급하였으며 또한 참여자들은 나라간 문화와 교수법의 차이로 가르치는 일이 힘들며 직장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장 내 남성들하고의 폭넓은 교제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 등 한국사회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자신, 가족, 사회범주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언어의 어려움’, ‘권위적인 남편에 대한 불만’, ‘자녀가 걱정스러움’,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 ‘녹치 않은 직업생활’, ‘한국문화와의 차이’로 하위범주화 되고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잘 모르겠는데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이들 옷 같은 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화난 것처럼 말씀하셔서..... (①-일본출신 대학강사 39세)

나쁜 점은 우리 남편은 항상 욕설, badwords를 해요. 지금도 쌍시옷이 나와요. 우리 2학년짜리 아이가 가끔 욕을 해요. 우리 남편의 신체 여러 부위가 아픈데, 조금만 아파도 욕설을 해요. 부드러운 모습만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⑥-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2세)

일속에서의 관계에서는 주위사람들이 내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라고 바라보는 것, 또 중국에서는 내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여자들 보다는 남자들하고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여자들 보다는 남자들하고의 관계가 편하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여기 군청에서는 여자들 보다는 남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⑫-중국출신 통·번역가 32세)

우리나라는 그런 존댓말 없어요. 어른들

이 진지 잡수셔요 식사 하세요 애들 밥 먹어 말할 때 마다 힘이 들어요. 할 때마다 신경 쓰여요. 처음에는 모르고 당했어요. 저것이 버릇 없네 어른한테 밥 먹어 한다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어른들 무시한 거 아닌데 그거 오해 많이 했어요. (③-중국출신 아동양육지도사 34세)

이와 같은 인과적 조건의 속성에서 각 상위범주 즉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의 정도가 높음-낮음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 즉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

표 3.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 종교로 결혼결정 ·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 우연한 만남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정도	높음-낮음	인과적 조건
· 언어의 어려움 · 남편에 대한 불만 · 자녀문제가 걱정스러움 ·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 ·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 · 녹녹치 않은 직업생활 · 한국문화와의 차이 느낌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	정도	높음-낮음	

과 ‘주도적임’,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 ‘좌절함’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① 주도적임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이 대부분 국제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반대가 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들의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하였으며 특히 부모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결혼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신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해 가는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결정대로 행동을 보여준 결과로 ‘주도적임’으로 통합하였다.

부모님이 다 반대를 해서 나의 신랑도 보지 않았고 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결혼을 밀어부쳐 여기까지 왔어요. (⑧-일본출신 공무원 52세)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성격이에요. 제 마음으로 결정해서 또 옳다고 생각되면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성격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⑤-베트남출신 벼섯공장근무 22세)

②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

연구 참여자는 한국생활의 어떠한 어려움도 자녀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자녀가 위로가 되

어주며 자녀는 투자의 대상이자 결혼생활의 이유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생활에서 자녀를 얻게 된 점, 대부분 자녀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된 언급으로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존재이유를 자녀에게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강한 모성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는 나의 존재이유’로 하위 범주화 하였고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경우 아들이 나에게 오히려 이해해라고 할 때 보람을 느껴요. (그런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날 위로해요. (⑨-중국출신 공무원 37세)

제가 아이가 네 명인데요. 직장생활에 아이돌보고 시어머니랑 살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동생들을 보고 집안일도 도와서 대견해하고 있어요. 우리시어머니가 큰소리치거나 집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면 ‘엄마 힘내요’라고 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략) 남는 건 자녀밖에 없을 것 같아요. (①-일본출신 대학강사 39세)

③ 좌절함

참여자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양육방법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가르치는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힘들며 자녀를

갖기 위해 임신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번 실패한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생활에서 친정부모를 자주 볼 수 없어 불만족이며 생활전반에 걸쳐 만족과 불만족의 공존은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노력해도 안됨’,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않음’으로 하위범주화되고 ‘좌절함’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아이들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⑨-중국출신 공무원 37세)

한국생활에 만족한 것도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친정엄마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친정 가족하고 가까우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 이죠. (⑪-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42세)

이 같은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에서 ‘주도적임’의 정도는 강-약, ‘힘이 되는 자녀’의 정도는 많음-적음, ‘좌절함’의 정도는 강-

약의 속성에 따른 차원으로 표 4와 같이 구분하였다.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생각 혹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중심현상은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연구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과정은 자신이 지금까지 문화나 남편과의 차이가 많았지만 남편이라는 이름과 자녀의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자녀는 결혼이민여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실을 극복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여성들이 임파워먼트되는데 가족이라는 중추적 요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남편과 가족과의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표 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감	주도적임	정도	강-약	맥락적 조건
· 자녀는 나의 존재이유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	정도	많음-적음	
· 노력해도 안 됨	좌절함	정도	강-약	
·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않음				

표 5.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수준	높음-낮음	중심현상

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그는 내 편이고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내가 그를 찾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한국에 올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극복해 나가고 있죠. 그도 또한 그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heart to heart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극복하는 과정은 조금 조금씩 변화로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⑦-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1세)

아이 때문에 결혼의 문제를 많이 극복했어요. 특별히 한국에 오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 결혼이 힘들고 못살겠지만 남편과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해야죠. (④-필리핀출신 학원강사 31세)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중심현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음'의 속성은 수준에 따라 높음-낮음으로 구분하였다. 한계를 극복해가는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자 하였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을 조절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는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노력함'과 '지지받음'의 중재적 조건이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스스로 노력함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을 겪는 사람은 바로 여성자신이기에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문화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스스로 했다고 제시하였다. 어린 조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진취적인 행동과 여성이 있는 반면에 처음엔 답답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위범주화 되었으며 이는 '스스로 노력함'으로 통합되었다.

이해하고 문화를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문화를 수용하려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④-필리핀출신 학원강사 31세)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게 된 동기는 조카에게 연필을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문방구라고 했어요. 그 땐 문방구란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단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림도 그리지 못해서..... (눈물을 흘린다) (⑫-중국출신 통·번역가 32세)

② 지지받음

무엇보다도 이들이 임파워먼트되도록 기여한 자원은 가족과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가 있었다. 이러한 지지는 결혼이민여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남편이 위로해주는 정서적 지지와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구적 지지,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며 친절엄마보다도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오해가 있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잘 이해해준다고 제시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언어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웃아줌마와 직장 내에서 동료의 따뜻한 말과 가르침이 생활의 기쁨을 준다고 하였으며 공적 지원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그 종사자들에게 한국어공부와 한국생활전반에 걸친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지원망과 내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남편의 지지’, ‘시댁식구로부터 지지’, ‘주위이웃의 지지’, ‘공적 기관의 지지’로 하위범주화 되었으며 ‘지지받음’으로 통합되었다.

친구들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남편사이에서 회복한 사이를 도움을 받았고, 이주여성 센터에서도 언어의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하고 이해해주는 걸 도움을 받았죠. (⑫-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6세)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고 대화자체가 통하지도 않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죠. 가끔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딸 같다고 얘기 할 때도 있어요. (⑤-베트남출신 버섯공장근무 22세)

주위사람들은 아는 형님 친언니처럼 친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간병사하게 도와주었어요. 그 이후 강사교육 받아보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간병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

표 6.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	스스로 노력함	정도	적극적-소극적	
· 남편의 지지	지지받음	정도	많음-적음	중재적 조건
· 시댁식구로부터 지지				
· 주위 이웃의 지지				
· 공적기관의 지지				

에 교육 받고 나서 학교로 돌아왔어요. (⑥-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2세)

이 같은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에서 ‘스스로 노력함’의 정도는 적극적인지 또는 소극적인지, ‘지지받음’의 정도는 많음인지 적음인지로 구분하였으며 표 6과 같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중심현상인 맥락적 조건 안에서 특정한 조건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정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목적을 지니는 목표지향적인 속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음’이라는 중심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전략행동을 통해 중심현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꿈을 가지고 살음

참여자들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자아실현하고 싶은 점 특히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제적 부유함을 원했으며 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미래 중 학업과 취직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자체가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험들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음’의 하위범주로 도출 되었으며 ‘꿈을 가지고 살음’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한국에 온 여성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임도 만들고 따로 스터디그룹도 만들어서 직업을 갖게 하고 싶고 생각이 많아요. (⑫-중국출신 통·번역가 32세)

나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2년 후에는 운전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용감하고 자신 있고 좀 더 부유해지면 좋겠고, 좀 더 멋진 차를 가지는 것이예요. 10년 후에는 새로운 집을 사고 싶어요. 필리핀에서도 새로운 집을 사고 싶어요. (⑫-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6세)

② 긍정적으로 바라봄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든 경우를 보고 자신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힘든 점이 있어도 감사하려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긍정과 감사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를 마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로 하위범주화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봄’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티비(TV) 보면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든

경우도 보고 나는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해왔어요. (⑦-필리핀출신 원어민 강사 31세)

힘들어요. 사실, 몸도 피곤하고 여기서 잘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마음먹으려고 노력해요. (⑩-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4세)

이 같은 작용·상호작용전략의 속성과 차원에서 ‘꿈을 가지고 살음’의 정도는 많음인지 또는 적음인지로, 본질은 전체적인지 또는 부분적인지, ‘긍정적으로 바라봄’의 수준은 높음인지 또는 낮음인지 본질은 적극적인지 또는 소극적인지로 구분하였으며 표 7과 같다.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중심현상이 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결과는 ‘자부심을 갖게 됨’, ‘한국인으로 살아감’, ‘다문화를 기대함’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좌절하면서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자녀의 존재로 인해 인내하고 위로가 되는’ 맥락적 조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음’

의 중심현상을 조정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해내려고 애쓰고 외적으로는 지지자원을 중재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을 활용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나아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기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자부심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후 주위 반응이 달라졌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녀가 자부심을 느끼며, 집안일과 활동으로 시댁식구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친정가족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한 보람을 느끼고, 일로 인해 얼굴도 밝고 자신감이 생기며, 자녀의 인정(영어잘함)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제시하였다. 즉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주위사람들이 자신의 역량 확인을 통해 자부심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인정받게 됨’, ‘일을 통한 보람’으로 하위범주화 되었으며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 통합되었다.

자녀는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녀는 매우 자랑스러워하죠. 엄마한테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부르니까 기분이 좋고 엄마가 선생님이니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직업에 대한

표 7. 작용·상호작용전략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 하고 싶은 일이 많음	꿈을 가지고 살음	정도	많음-적음	작용·
·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	긍정적으로	수준	높음-낮음	상호작용
· 여유로운 경제상황을 경험	바라봄	본질	적극적-소극적	전략

보람도 아이에 대한 자랑스(자부심)도 느껴져요. (⑦-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1세)

다른 아이들은 피부가 다르고 그걸 엄마한테 폭발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거 없어요. 항상 우리엄마 좋다하고 예쁘다하고 그래요 한국말 중국말 집에서 잘 사용해요. (③-중국출신 아동양육지도사 34세)

이제 일도 잡았으니까 옛날에는 얼굴도 어두웠는데 지금은 대게 밝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신감가지고 살아요. (중략)영어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 듣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길에서 만날 때 ‘영어선생님’ 하면서 달려와 인사하고 영어문자메시지 보내면 영어로 답장하면 저도 기분이 좋고 기뻐요. (⑥-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2세)

② 한국인으로 살아감

참여자들은 한국인과 본국인 국적의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 대해 얻게 된 점이 많다는 것,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에 대해 알게 된 점, 한국에서 부모님 모시는 것 등 한국적 특성을 수용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각자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한국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을 떠나 있을 때 한국이 그리웠다는 경험을 제시하였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이 솔직하고 한국

의 날씨가 마음에 들고 오히려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의 동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자신의 경험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경험은 ‘주체적 한국인으로 살아감’, ‘한국을 좋아함’으로 하위범주화 되었으며 ‘한국인으로 살아감’으로 상위범주화 되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50: 50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필리핀에서 살고 싶었는데 2004년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 필리핀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그리웠고 그걸 보면서 한국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⑦-필리핀출신 원어민강사 31세)

처음엔 힘든 점도 많았죠. 시간이 가고 나도 노력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야단 듣고 하루 식사 세 번 준비해야 하고 처음엔 너무 힘들어..... 그게 생각해 보면 나에게 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젠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요. 뭐 한국사람 다 됐죠 뭐.....(⑤-베트남출신 버섯공장근무 22세)

③ 다문화로 기대함

자녀에게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를 포함하여 다문화를 알려주게 되어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으며 자녀들이 본국에 가서 학업을 하거나 생활할 수 있어서 좋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문화를 자녀가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여 가정 내에서 다문화

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험들은 ‘다문화를 기대함’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다문화를 기대함’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다문화 아이들에게 그러한 문화를 알려주는 것 지금 중국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한류열풍으로 한국말 배우고 한국 노래 배우고 한국 춤 배우고 난리 났는데 중국에 바이어들도 많아요. 나중에 내 아이가 중국 가서 통역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선생님이 중국말도 잘하고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기분 좋았어요. 중국에 땅도 넓기 때문에 여행도 하고 한국에 시집오지 않았으면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③-중국 출신 아동양육지도사 34세)

이 같은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결과의 속성과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됨’의 정도는 높음인지 낮음인지, ‘한국인으로 살아감’의 수준은 높음인지 또는 낮음인지, ‘다문화를 기대함’의 정도가 높음인지 또는 낮음인지로 구분되었는데 표 8과 같다.

선택코딩에 따른 핵심범주와 유형

핵심범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선택코딩에 따라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핵심범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졌지만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였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래도 이러한 현실을 주도적 성격과 함께 나아갔으며 자녀가 힘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삶속에서 좌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꿈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나아가 진정한 다문화를 기대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즉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으로 살아가는데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제한점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와 외부지지를 통해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인정받음으로써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

표 8. 결과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 인정받게 됨 · 일을 통한 보람	자부심을 갖게 됨	정도	높음-낮음	결과
· 주체적 한국인으로 살아감 · 한국을 좋아함	한국인으로 살아감	수준 본질	높음-낮음 전체적-부분적	
· 다문화를 기대함	다문화를 기대함	수준	높음-낮음	

타났다.

임파워먼트과정의 유형.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전후관계를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에 따라 모든 사례를 나누고 있을 수 있는 상관관계를 정형화한 후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전개하였다. 인과관계, 맥락적 조건, 결과에 따른 12개의 정형화된 가설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가설적 관계진술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참여자는 결혼에 대한 준비정도가

낮고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살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이 높아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성취해 나갈 것이다.

가설 2. 참여자는 결혼에 대한 준비정도가 낮지는 않고 많은 문제를 인식하지는 않고 살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이 높아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중도주의적 태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가설 3. 참여자는 결혼에 대한 준비정도가 낮지는 않고 많은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이 높지 않아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갈 것이다.

표 9.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 유형

패러다임	상위범주	문제극복성취형	온유한 도전형	역할충실형
		사례 6, 7, 10, 12	사례 2, 3, 5, 8	사례 1, 4, 9, 11
인과적 조건	준비되지 않은 결혼	높음	낮음	낮음
	문제를 인식함	높음	중간-낮음	낮음
맥락적 조건	주도적임	강	중간	약
	힘이 되는 자녀	많음	많음	중간-적음
	좌절함	강	약	약
중심현상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음	높음	높음	낮음
중재적 조건	스스로 노력함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지지받음	많음	중간	중간-적음
작용·상호작용 전략	꿈을 가지고 살음	많음	적음	적음
	긍정적으로 바라봄	높음 적극적	높음 적극적	보통-낮음 소극적
결과	자부심을 갖게 됨	높음	높음	낮음
	한국인으로 살아감	높음 전체적	높음 전체적	높음 부분적
	다문화를 기대함	높음	중간	낮음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시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9와 같이 한국생활에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수준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문제극복 성취형’, ‘온유한 도전형’, ‘역할충실형’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① 문제극복 성취형

‘한국사회에서 당당히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유형’으로 못할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노력하며 변화해가는 삶을 영위한다. 이 유형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존심이 상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살아가면서 남편을 비롯한 시댁식구와의 어려움, 주위의 차별을 경험하였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와 더불어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보다 늦게 한국에 온 결혼이민여성들의 리더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문제극복 성취형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도전을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된 사례는 사례 2, 사례 6, 사례 10, 사례 12로 나타났다.

② 온유한 도전형

‘할 수 있는 일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내는 유형’으로 결혼이민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준비하며 노력하는 유형이다.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지는 않았으나 문제와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자 인내심 있게 성실히 노력하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목소리도 내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면의 강한 열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외부로 강하게 표출되지 않아 온유한 도전자로 보여 진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된 사례는 사례 3, 사례 5, 사례 7, 사례 8로 나타났다.

③ 역할충실형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유형’으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 큰 도전은 없으나 현재에 만족하며 소박한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결혼당시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가족과도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일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과 능력은 문제극복 성취형과 온유한 도전형 보다는 높지 않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수용하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현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된 사례는 사례 1, 사례 4, 사례 9, 사례 11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과정 분석

과정분석이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정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을 분석한 결과 그

과정은 ‘혼란’, ‘시도와 노력’, ‘안정을 찾는’, ‘능력발휘’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1단계: 혼란 단계

한국에 올 때 종교적인 이유로 막연하게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연한 남편과의 만남으로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시작하고 보니 언어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왔고 남편은 권위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무계획하고 지나친 추진력을 보이고 남편과의 해결방식 차이로 결혼이민여성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또한 자녀의 언어문제와 숙제를 못 봐주기도 하며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며 시어머니와도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진실하지 않은 한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문화, 부부간 차이를 느끼며 남편과 다른 갈등해결방식에 녹록치 않은 직업생활까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줄 뿐이다.

② 2단계: 시도와 노력의 단계

부모님의 결혼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로 밀어부쳐 여기에 왔고 처음엔 많은 문제에 봉착하였고 특히 의사소통이 답답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반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양육방법에 어려움을 갖으며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노력해도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지 않을 때 좌절감까지 갖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있어서이고 자녀가 결혼생활의 이유이기도 하다. 변화를 위한 시

도와 몸부림과 함께 한국생활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여성 자신의 내적인 동기부여 요인이 2단계로 이동하게 하는 중요작동기제로 나타났다.

③ 3단계: 안정을 찾는 단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과 서로 차이를 극복하였는데 자녀로 인해,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극복하였다. 자신보다 더 힘든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은 행운이라는 생각과 힘든 점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 단계에서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편, 시댁식구, 주위나 이웃, 각종 센터 등 공적기관의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받아 일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족 특히 자녀의 존재, 자신의 여건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려는 긍정성, 다양한 사회적 지지군 등이 한국사회로 안착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④ 4단계: 능력발휘 단계

이제 예전보다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을 보여준 후 주위반응이 달라졌다.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자녀가 다문화로 자연스럽게 습득해나가서 한국생활이 어렵지 않고 만족스러우며 한국 사람이 되어 적응해가고 있다. 일과 여성들이 갖는 능력을 통해

자녀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시대동서, 시누이들로부터 집안일과 직업 활동을 통해 인정받은 단계이다. 또한 친정가족에게 일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되어 보람도 느끼며 저축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하는 단계이다.

긍정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를 기대하고 그 중심에서 자신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미래 꿈을 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며 특히 힘든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최선을 다해 미래의 좋은 선생님, 엄마, 아내 등 자신의 역할충실도를 높여가고자 하며, 운전도 배우고 대학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아실현 하고자 한다. 여성들 대부분 경제적 여유를 더 누리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결과적으로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자부심을 갖고 다문화사회를 기대하는 요인이 자신을 더 나은 세 계로 유도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상황모형

상황모형은 다양한 상황적 조건이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작용·상호작용과 결합해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분석방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통합된 설명을 구축하고 각 조건들과 현상간의 관계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추구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에 대한 상황모형은 다문화사회와 희망을

의미하는 무지개 속에서 결혼이민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임파워먼트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결혼이민여성은 ‘개인’수준에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문화차이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이에 대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 ‘가족’ 수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의 지지, 시댁식구로부터 지지가 있고 자녀 또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며, 자녀를 비롯해 시댁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일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는다. ‘사회’ 수준에서 주위나 이웃, 공적 기관의 지지가 있으며 일을 통해 인정받음과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되었고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을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 반면 다른 대상의 임파워먼트과정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적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의 중심현상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

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은 남편, 자녀, 시부모 및 시댁식구 등의 가족관계와 직업생활까지 하고 있었기에 보다 복잡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은 자신이 지금까지 국가 간 문화차이나 가족 특히 남편과 시부모와의 차이가 컸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였으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실을 극복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자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이 '가족'을 지향하는 성향과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요인은 한국사회에서 임파워먼트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생활의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실망, 후회, 소외감의 상태는 가족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남편과의 애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에서 삶의 만족을 기대한 연구(김동수 등, 2008)와 같이 한국생활에서 가족의 존재가 완충작용과 기폭제로서 성장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Garba(1999)도 사회 속에서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적이고 가족지향적인 인식프로그램을 언급하고 나아가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ion)까지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족중심주의 가치관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할 때 결혼이민여성은 임파워먼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에게는 가족공동체에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와 남편, 시부모, 자녀를 포함한 가족모두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와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은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대한 인식,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함' 등을 인과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구차순, 2007)논의와 일맥상통하며 결혼이민여성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한 요인들은 역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임파워먼트되어야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결혼이민여성이 임파워먼트되는데 항상 긍정적인 여건만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도약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여성자신과 가족, 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고려된 다차원적인 접근과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문화적 특성 및 한국가족과 사회의 공존을 통한 임파워먼트 향상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맥락적 조건으로 제시된 '주도적임', '힘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고마움', '좌절함'이 제시되었는데 '주도적임'에서 볼 수 있듯이 임파워먼트되기 위해서는 자존감과 용기, 삶의 뚜렷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이들이 한국과 국제결혼을 결정한 것부터 이미 이러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한국사회에서도 그 힘이 유지되고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되는데 필수요건이다. 결혼이민여성은 자신의 상황을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행운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를 찾으려는 태도가 한계를 극복하게 한 핵심요인이었다.

반면에 결혼이민여성이 살아가면서 좌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보다 건강한 성장은 항상 긍정적인 요인만이 아닌 부정적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이를 극복해내는 경험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좌절은 무기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임파워먼트 과정에 더 큰 강화와 안착을 가져온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박주희와 정진경(2007)의 연구에서도 이주여성들은 여러 상황요인에 대해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책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그냥 참으며 상황이 바뀌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도 하였다고 밝혀 결혼이민여성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데 다양한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중요한 도구로 재정스트레스, 정서스트레스, 신체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적응이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hampakdy-Brown et al., 2006).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결혼이민여성의 중재조건으로 ‘스스로 노력함’, ‘지지받음’이었는데 이러한 요인이 한계를 극복하는 추동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내려고 애쓰는 자신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과 무관하게 혈액투석환자(김효빈, 2001), 여성장애인(김미옥 등, 2005), 결혼이민여성(구차순, 2007)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임파워먼트되는데 개인 내적 노력과 의지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이 임파워먼트되는데 인식, 능력조성과 기술발달과 같은 개인 내적인 임파워먼트전략을 강조한 Garba(1999)의 연구에서도 여성 자신의 내적 요소는 많은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에게 자신이 삶의 주체이고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담, 가정방문, 심리교육, 지지와 옹호 등의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의 중요한 중재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미약하고 주변으로부터 단절된 경우 더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었고 외부상황이 자신에게 좀 더 호의적일 때 활기차게 한국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신의 문화와 주류문화를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적응에 더 긍정적이었다는 선행연구(박주희, 정진경, 2007)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족,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지지체계가 임파워먼트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지지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자신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구성원의 지지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제고 및 관심과 배려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사회단체를 비롯한 공적기관의 지지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입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동시에 이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겠다. 거시적으로는 결혼이민여성도 유능한 존재일 수 있

다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과 다문화 사회로의 통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 제시된 ‘꿈을 가지고 살음’, ‘긍정적으로 봄’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경제적 부유를 원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소득차가 다소 폭이 크더라도 강한 경제적 욕구가 있고, 전반적으로 직업생활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표방하고, 현 직업생활로 인한 경제적 기여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 된 계층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차후 전문 직업 상담을 통해 취업교육 및 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을 기존의 직업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시키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방안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임파워먼트결과는 ‘자부심을 갖게 됨’, ‘한국인으로 살아감’, ‘다문화를 기대함’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 타인 특히 가족과 상호작용을 통한 임파워먼트결과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이 자신의 존재감을 더 고조시켰다. ‘한국인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결혼이민여성의 자발적 의지인지 그동안 동화유도적 다문화정책의 결과인지는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나 여성개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다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특징에 기반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실천적 활동과 접근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임파워먼트가 논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직업-가정 생활과의 양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직업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출신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이 선정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임파워먼트되는데 한국에서 지내는 결혼기간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결혼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의 병리, 결핍, 비정상 등의 문제자체에 관심을 두는 문제 중심적인 시각과 피해자관점에서 벗어나 결혼이민여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그들의 잠재력을 지지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역량을 실현해 나가는데 초점을 둌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을 보여주고 유도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와 적응하기까지 임파워먼트과정 및 결과를 밝혀냄으로써 근거이론의 장점인 이론 구축(theory-building)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며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혹은 부적응에 대한 사후대처 차원의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각자의 특징과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강점발견과 성공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 다른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될 수 있는 모델링을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함께 교육, 노동, 문화, 법적 체계구축 등 다양한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실천가들과 정책가들에게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계획, 과정, 조직 등 사회복지실천 분야와 정책지원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문화적 역량을 갖춘 실천가와 정책가를 양성하기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후속연구는 다문화가족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이들 배우자와 시부모 및 자녀도 서로에게 어떠한 과정으로 적응하고 임파워먼트되는지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족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문화적 민감성이 갖춰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20호, 319~359.
- 김동수, 정태연, 박준성, 김현정 (2008). 동남아시아 여성의 결혼의 동기와 결혼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78-179.
- 김미옥, 김희성, 이민영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연구: 성인기이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1), 31~59.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호, 217-252.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빈 (2001). 혈액투석 환자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학회대회 논문집*, 6, 427-442.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주희, 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 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2008). 베트남 여성결

- 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신경희 (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 (2006).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경험과 대응-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화 (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 양순미 (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사회학회, 17(2), 1-24.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 논문.
- 제니스, 페기앤(Morse, Janice, M. and Field, Peggy Anne) (1997). 질적간호연구방법. 신경림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사례조사 보고회 자료집.
- 정천석, 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차옥승 (2008). 국제혼인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담론, 11(2), 139-169.
- 채옥희, 홍달아기 (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최금해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최연실, 권용혁, 김태성, 우실하 (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이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 최연실, 이순형, 문무경 (2008). 농촌거주 결혼 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연구, 15(3), 225-248.
- 최윤희, 이미영, 조미자, 문정신 (2003). 치매노인 여성의 체험연구. 한국노년학, 23(1), 113-128.
- 통계청 (2008). 2008년 통계자료.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ard, B. (1999). Applications of resilience: possibilities and promise. in M. Y. Glantz and J. L. Johnson(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pp.269-280), NY: KA/PP.
- Conger, A. J., & Kanungo, N. R. (198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71-482.
- Cottrell, A. B. (1990). Cross-national marriag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ntemporary Family Studies*, 21, 151-169.
- Garba, K. P. (1999). An endogenous empowerment strategy: a case-study of Nigerian women. *Development in Practice*, 9(1), 130-141.
- Gutheil, I. A., & Congress, E. (2000). Resiliency in older people: A paradigm for practice. in E. Norman(ed.), *Resiliency enhancement*(pp.40-52),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utierrez, L. M., DeLois, K. O., & GlenMaye, L. (1995). Understanding empowerment practice: Building on practioner-based knowledge. *Families in Society*, 76, 534-542.
- Hsia, Hsiao-Chuan. (2005). Empowering “Foreign Brides” and community through action research. in Migrants, women and their empowerment. Women's worlds 2005. 9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이주여성연대 자료집, 54-78.
- Khamphakdy-Brown, S., Jones, N. L., Nilsson, E. J., Russell, B. E., and Klevens, L. C. (2006). The empowerment program: An application of an outreach program for refugee and immigrant woma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38-47.
- Rappaport, J. (1984). Studies in empowerment: Introduction to the issue. In J. Rappaport, C. Swift, & R. E. Hess (Eds), *Studies in empowerment: Steps toward understanding and action*. New York: Haworth.
- Rolls, C. & Chamberlain, M. (2004). From east to west: Nepalese women's experienc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1(3), 176-185
- Shera, W., & Wells, L. M. (1999).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Canadian Scholar's Press.
- 이경아 · 박정임 · 김민석 · 서홍란 · 하경희 · 이금진 · 유명이 · 강미경 공역 (2002). 사회복지실천에의 역량강화실천. 양서원.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 Szuki, N. (2003). Transgressing ‘victims’-Reading narratives of ‘Filipina Brides’ in Japan. *Critical Asian Studies*, 35(3), 399-420.
- Szuki, N. (2004). Inside the home: Power and negotiation in Filipina-Japanese marriage. *Women's Studies*, 33, 481-506.
- Tapiru, R. (2005). Migrant women empowerment. in Migrants, women and their empowerment. Women's worlds 2005. 9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이주여성연대 자료집, 79-85.
- Williams, L. & Labonte, R. (2007). Empowerment for migrant communities: Paradoxes for practioners. *Critical Public Health*, 17(4), 365-379

1 차원고접수 : 2009. 06. 27.

수정원고접수 : 2009. 08. 25.

최종게재결정 : 2009. 08. 28.

A Study on The Empowerment Process of Immigrant Women

Kim, Minkyo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2 immigrant women who have been married to Korean men for more than 3 years. This study employed the grounded theory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Data analysis generated 136 concepts, 27 sub categories, and 14 categories. In the axial coding, a paradigm model was proposed as follows: The central phenomenon of the empowerment process of immigrant women was that of 'Overcoming the Limits'. The causal conditions were 'Unprepared for Marriage', and 'Perceiving the Problems'.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Active Personality', 'Child Giving Power', and 'Frustration'.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Effort by Oneself', 'Accepting Support'.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Living our Dream', and 'Maintaining a Positive Outlook'. The consequences were 'Pride', 'Living as a Korean' and 'Expectations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was 'To Live Independently by Overcoming my Limits as a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core category, three types and four stages of the empowerment process of the immigrant women were discerned. These three se were the 'Actively Achieving Type', 'Moderately Trying Type', and the 'Sincerely Living Type'. The four stages were the 'Confused Stage', the 'Trying Stage', the 'Stable Stage', and the 'Exhibiting Stage'. The empowerment process of these Immigrant women resulted in greater promise in the future,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life in Korea, and dreams of grater self development and adventure. This study has reinforced the need for a synthetic and differentiated approach according to an individual's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have increased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the empowerment process of immigrant women, as well as elucidating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services and theories about immigrant women.

Key words : Empowerment, Immigrant Women, Grounded theory, Qualatative research